

프로야구 22일부터 후반기 돌입...순위 싸움 본격화

SSG·키움·LG 3강 체제 유지될까 관심

6위 롯데·7위 두산 등 후반기 반등 노력

KBO리그가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한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KBO리그는 오는 22일 오후 6시30분 잠실 (SSG 랜더스-두산 베어스), 사직(KIA 타이거즈-롯데 자이언츠), 창원(LG 트윈스-NC 다이노스), 고척(삼성 라이온즈-키움 히어로즈), 대전(KT 위즈-한화 이글스)에서 후반기 열전을 시작한다.

지난 16일 올스타전을 마친 KBO리그는 휴식에 들어갔다. 각 팀들은 달콤한 휴식과 함께 재정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위권 팀들의 순위 싸움이 치열했다. 특히 개막전부터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SSG(57승 3무 26패)는 어느 팀보다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SSG는 올해 개막 10연승을 달리며 1위로 치고 나갔고, 키움(54승 1무 32패)의 맹추격 속에서도 4.5경기 차로 선두를 지켰다. SSG는 사상 처음으로 1위 독주 우승에 도전한다.

SSG의 강점은 '원투펀치' 김광현과 윌머 폰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광현(9승)과 폰트(11승)는 20승을 합작했으며, 나란히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6승을 올린 이태양은 개인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약 두 달만에 부상에서 돌아온 노경은도 선발진을 책임지고 있다.

최정과 한유선, 박성만, 최지훈 등은 강력한 타선을 구축해 SSG 타선을 이끌고 있다. 최정은 12홈런을 날려 여전한 화력을 과시하고 있고, 한유선은 72타점을 올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박성만은 타율 0.332로 타격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키움과 3위 LG(52승 1무 31패) 역시 3강 체제를 구축하며 1위 탈환을 노리고 있다. 키움은 에이스로 발돋움한 안우진과 에릭 요키시를 앞세워 SSG를 추격하고 있다. 전반기에만 10승을 수확한 안우진과 요키시는 17승을 합작했다. 김재웅(2승 23홀드)은 홀드 1위를 달리며 키움의 불펜을 이끌고 있다.

키움의 팀 평균자책점은 3.23으로 리그 1위다.

LG는 채은성, 홍창기, 김현수, 박해민의 활약으로 팀 타율(0.270)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19홈런을 터뜨린 김현수를 필두로 팀 홈런도 72개로 1위를 질주 중이다.

LG 에이스 케이시 켈리(12승)와 아담 플릿코(9승)는 올해 21승을 만들어냈다.

4위 KT(44승 2무 38패), 5위 KIA(42승 1무 40패)는 LG와의 격차가 벌어져 상위권 도약이 요원해졌다.

전반기에 하위권으로 떨어졌던 KT는 소형준, 고영표 등 탄탄한 마운드와 홈런 1위 박병호(27홈런)를 앞세워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으로 끝머리를 잃고 있다.

KIA는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5위 수성을 담당할 수 없다.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4연승을 올린 6위 롯데(38승 3무 44패)는 호시탐탐 5위 탈환을 노리고 있고, 예년에 비해 크게 전력이 약화된 두산(36승 2무 46패) 역시 7위 자리에서 '가을야구'를 남기고 있다.



장단 후 처음으로 11연패의 수렁에 빠진 8위 삼성(35승 50패)은 반등이 필요하고, 9위 NC(32승 2무 49패)는 하위권 탈출을 바라고 있다. 삼성과 NC는 선발진이 붕괴돼 반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하위 한화는 시즌 25승 1무 59패라는 처

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화는 팀 타율, 평균자책점이 모두 최하위다. 이대로라면 KBO리그 사상 첫 100패 팀으로 남을 수도 있다. 뉴스

윤이나, KLPGA 퀸즈크라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다른 신인 선수들이 본받을 만한 선수가 되고파” 각오



‘루키’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버글라든 퀸즈크라운(총상금 8억원)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으로 생애 첫 정상에 섰다. 윤이나는 17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를 쳐 2언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20언더파 268타를 친 윤이나는 생애 첫 KLPGA 투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윤이나는 4라운드 14번 홀까지 버디 3개, 보기 3개를 낚아 타수를 줄이지 못해 1위 자리를 박지영(26)에게 빼앗겼다.

하지만 윤이나는 15, 18번 홀에서 버디를 낚아 상대의 추격을 힘겹게 뿌리쳤다.

윤이나는 “아직까지 내가 우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우승 직후 ‘실화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 알뜰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14번 홀에서 선수가 뒤바뀌었을 당시 심정에 대해 “스코어를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서 선수가 바뀐 줄 몰랐다. 14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어도 다음이 파5 홀이라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이나는 목표에 대해 “우선 한 차례 더 우승하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LPGA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싶다. 또 나중에 다른 신인 선수들이 본받을 만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지영은 후반 라운드에서 1타도 줄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지영은 결국 최종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쳐 2위에 머물렀다.

마지막 날 6타씩 줄인 하민승(26)과 곽보미(30)는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한솔(26)은 16언더파 272타로 5위에 자리했다.

여자축구 이민아·이영주 “일본, 강하지만 약점 있어...우승 목표”

17년 만에 동아시아컵 우승 도전...오늘 일본과 첫 경기



한국 여자축구가 17년 만에 동아시아컵 정상 탈환을 노린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오는 19일 일본에서 막을 올리는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16일 입국해 적응 중이다.

부산에서 열린 직전 2019년 대회에서 일본에 밀려 준우승에 만족한 대표팀은 2005년 초대 챔피언 이후 17년 만에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19일 열리는 일본과 첫 경기 가 중요한 변수다.

이민아(현대제철)는 17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우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 감독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목표는 다들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란 팀은 강하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빈 공간이나 약점이 나온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뛰어나고 나오면, 밖에서 볼 때도 나온다”며 “(강하지만) 엄청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자축구의 역대 일본전 상대전적은 32전 4승11무17패로 크게 열세다.

그러나 올해 초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에선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민아는 “첫 경기부터 일본과 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여자축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고 많이 응원해주고 있다. 더 응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영주(마드리드CF)는 “일본이 강팀인 것은 인정하지만 넘지 못할 산이라는 생각은 다 갠 것 같다”며 “(올해) 아시안컵에서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라졌다. 희망이 많아지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 한일전은 남다르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잘 이기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별호는 지난달 27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이자 2020 도쿄올림픽 우승팀인 강호 캐나다를 스파링 파트너로 삼아 0-0 무승부를 기록,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내년 호주·뉴질랜드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을 향한 과정에 있어 결과만큼이나 내용이 중요하다. 중간평가의 무대다.

이영주는 “내년에 월드컵이 있다. 항상 월드컵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한다”며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많아서 절실함이 있는데 그런 대회를 준비하는 대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특별하다”고 했다.

이민아는 “개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을 키우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은 것이 많다. 체력, 기술, 마무리 능력, 패스, 슈팅을 키우고 싶다. 팀적으로는 조직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했다.

동아시아컵 여자부는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4개국이 출전해 풀리로 우승을 가린다.

한국은 일본전을 시작으로 23일 중국, 26일 대만을 차례로 상대한다.

우상혁, 오늘 새 역사 향해 날아오른다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우승 도전...같은 해 실내외 석권은 역대 단 1명 뿐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새 역사’를 향해 날아오른다.

우상혁은 19일 오전 9시45분(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의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리는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출전한다.

우상혁은 지난 16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넘어 공동 1위로 결선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 높이뛰기 선수가 세계선수권 결선 무대를 밟은 것은 우상혁이 1999년 세비아 대회 이전엔 이후 23년 만이다.

가파른 성장세를 과시하며 이번 대회 남자 높이뛰기 유력 우승 후보로 거론된 우상혁은 예선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했다. 2m17, 2m21, 2m25, 2m28을 모두 1차 시기에 뛰어넘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예선을 마친 선수는 우상혁을 포함해 4명 뿐이었다.

우상혁은 19일 열리는 예선에서 한국 육상의 새 역사 창출에 도전한다.

한국 육상 역사상 실외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선수는 남자 경보의 김현섭 뿐이다.

김현섭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경보 20km에서 1시간21분17초를 기록, 6위에 자리했다. 하지만 이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에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대거 나오면서 3위까지 올라섰다. 세계육상연맹은 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 기간 중 뒤늦게 김현섭에게 동메달을 수여했다.

우상혁이 이번 대회에서 시상대에 서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가 된다.

우상혁의 목표는 우승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결전지인 유진으로 떠나면서 “실내에서도 우승했으니 실외에서도 우승하겠다” 각오를 다지고 출국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상혁은 한국 육상 사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린다. 트랙·필드 종목만 놓고 보면 최초의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가 된다. 한국 트랙·필드 종목 선수의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은 1999년 세비아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이진택이 달성한 6위다.

지난해 여름부터 우상혁이 날아오를 때마다 한국 육상 역사가 새로 쓰여졌다.

우상혁은 지난해 8월 2020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2m35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4위에 올랐다. 한국 육상 트랙·필드 최고 성적이었다. 지난해 겨울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한 우상혁은 올해 초 유럽으로 이동, 실내 대회에 참가하며 기량을 다졌다.

우상혁은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실내 대회에서 2m36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 열린 실내 대회에서도 2m35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이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 나선 우상혁은 2m34를 뛰어넘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최초의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는 2020 도쿄올림픽 공동 1위에 오른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도 출전했지만, 그는 우상혁에 밀려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세계 정상급 점퍼로 거듭난 우상혁은 5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제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2m33을 넘어 1위에 올랐다. 다이아몬드리그 메달을 딴 것 또한 우상혁이 한국 선수 최조였다.

무엇보다 도쿄올림픽 동반 금메달의 주인공인 무타스 에사 바심(카타르), 탬베리를 모두 제치는 기업을 토했다.

우상혁이 금메달을 따면 한국 육상 역사상 새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세계육상에서도 진기록이 써진다.

역대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같은 해에 실내, 실외 세계선수권을 모두 제패한 선수는 하비에르 소토마요르(쿠바) 뿐이다.

소토마요르는 1993년 3월 토론토 세계실내선수권대회에서 2m41을 뛰어넘어 우승했고, 그해 8월 슈투트가르트 실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m40으로 우승했다.

역대 최고 점퍼로 꼽히는 소토마요르는 1989년 부다페스트, 1993년 토론토, 1995년 바르셀로나, 1999년 마에바시 세계실내선수권과 1993년 슈투트가르트, 1997년 아테네 세계실외세계선수권에서 정상에 섰다. 그가 1993년 7월 작성한 2m45의 세계기록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한 해에 세계실내육상선수권과 세계실외육상선수권이 함께 열린 것은 1987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2003년 등 8번이다. 이번 대회에서 우상혁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현역 최강 점퍼 바심도 실내외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정상에 선 바 있다. 2014년 소포트 실내 세계선수권에서 2m38로 우승한 바심은 실외 세계선수권에서는 2017년 런던(2m35), 2019년 도하(2m37)에서 잇따라 우승했다. 우상혁보다 시즌 출발이 늦었던 바심도 예선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며 역시 쾌조의 컨디션을 뽐냈다. 우상혁이 새 역사를 써내려갈 바심을 넘어서야 한다.